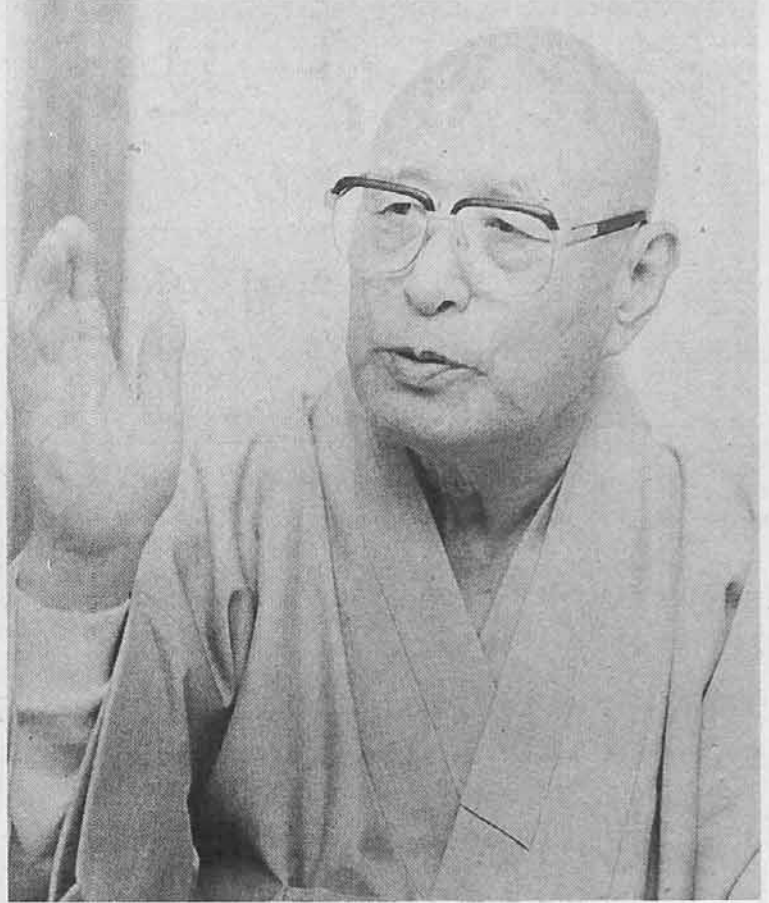


지상 법석

“왜 범부의 삶에 얽매어 있나”



월산 스님 <불국사 조실>

법법을 모르고 욕심이 떨어져 죽으면 허둥지둥 갈 곳조차 모르게 됩니다. 죽은 후에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그 갈 곳을 아는 것은 부질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도를 닦으면 죽은 후에 갈 곳은 원히 다 보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에 보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에 집착조차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삶과 죽음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사유법, 참선인 것입니다. 부처님은 사유를 하면서 생노병사의 고통을 아셨고 사유를 통해 그 고통을 훌쩍 뛰어넘는 길을 열어 보이셨습니다. 참선은 생각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잡스런 것을 마구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몸을 단정히 하고 생각의 뿌리를 한 곳에 모으고 진리의 본체를 밝혀내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쉽지 않다면 차례차례 참선을 해 나가야죠. 집에서 부처님께 일하다가 가만히 앉아 생각하십시오. 무슨 생각이든지 하십시오. 조사들의 공안을 참구하며 화두공부를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입니다. 밤잠 재가 여러번씩 생각을 하는 것이 참선이다 했는 데 이제 그 생각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참선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단계입니다. 마음은 고요한데 거기에 온갖 생각을 일으키고 잡념을 일으켜 내는 것입니다. 본래 고요한 마음을 망상으로써 고통받게 하는 것입니다. 망상이 많고 고통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은 부처님이 열반이 아니라 백번 나와도 제대로 교화받지 못

다시 푸는 경서

초발심 자경문 (7)

今日不盡 造惡日多 明日不盡 作善日少 (금일부진어늘 조악일다하며 명일부진어늘 작선일소하리)
今年不盡 無限煩惱 來年無盡 不進菩提 (금년부진어늘 무한번뇌하며 내년부진어늘 부진보리도다)

不修諸善而耽四生之業海 (불수제선이침사생지업해로다)
아운비구(나옹화상제자)가 지은 자경문
주인공아 내말 들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깨달음을 얻었는가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오랜동안 고통의 세계에서 살고도는가.

오날만, 오날만 하지만 오늘은 다할 일 없으니 악업짓는 날 허다하며 내일엔, 내일엔 하고 미루지만 내일도 다할 없으니 산업 짓는 날 적도다. '금년만' 한해도 금년은 다할 없으니 번뇌엔 끝이 없고 '내년부터'라 하지만 내년은 언제나 내년이니(영명)보리도에 나아가지 못하리도다.

身隨六賊放 或墮惡趣則極辛極苦 (신수육적고로 혹타악취극극신극고하고)
心轉一乘放 或生人道則佛前佛後 (심전일승고로 혹생인도즉불전불후로다)
今亦幸得人身 正是佛後末世 嗚呼痛哉 (금역행득인신이나 정사불후말세니 오호통재로다)

몸으로는 육근이 상대하는 경계를 따르는 가운데 악취에 떨어진 즉 신고(辛苦)가 극에 달하고 마음으로는 위 없는 부처님 법을 등진 가

어찌하여 고통세계를 돌고 도는가 애욕을 벗어나면 묘법세계 있거늘

부서진 수레라 가지 못하니 늙어서는 닦지 못하고 늙고 싶고 게을러 질 뿐 애써 자리들고 앉아 보았자 번뇌망상 어찌러울 뿐이네.

달에 혹 사람의 몸을 받았어도 부처님 나시기 전이나 그 후로다.
금생에 또다시 다행스럽게도 사람의 몸 받았으나 바로 이 때가 부처님 아니 계신 말법시대이니 아이! 슬프고 애달도다.

幾生不修 虛過日夜 幾活空身 一生不修 (기생불수어늘 허과일야하며 기활공신이어늘 일생불수어)

是難過難 雖然 汝能反省 割愛出家 (시수과어야 수연이나 여능반성하여 할애출가며)
受持應器 着大法服 履出塵之經路 (수지응기하고 차대법복하여 리출진지경로하고)
學無漏之妙法 如龍得水 似虎靠山 (학무륜의묘법 如龍得水 似虎靠山)
(학무루지묘법하면 여용득수요 사호고산이로다)
其殊妙之理 不可勝言 (기수묘지리는 불가승언이니라)

이 누구의 허물인가. (사연은) 비록 그러하나 그대가 능히 반성하여 애욕을 배어버리고 출가하여 바루를 들고 법복을 입어 (바른 법을 받아 번뇌에 물품이 없는 무위의 묘법을 배우면 마치 용이 물을 얻은 듯, 호랑이가 산중에 들어간듯 하리니 그 수승하고 요묘한 이치는 말로써 다할 수 없느니라.
龍眼

《野雲比丘 自筆文》 (아운비구 자경문)

主人公 聽我言 (주인공아 청어안하라)
幾人 得道空門裏 汝何長輪苦趣中 (기인이 드도공문리어늘 여하장륜고취중가)
汝自無始已來 至于今生 背覺合塵 (여자무시이래로 지유금생히 배각합진하고)

願老惡願 恒造眾惡而入三途之苦輪 (타락우치하여 항조중악어입삼도고륜하며)

구독신청 : 737-8881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보고 주장자라고 하면 이치에 어긋나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하면 또 사변에 어긋납니다. 자, 대중 가운데 어느분이든지 일어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한말씀 해 주시오. 주장자라고 하면 이치에 어긋났고 주장자가 아니라고 하면 사변에 어긋났으니 무엇이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대중들이 침묵을 하니 불가불 산승이 한마디 안할 수가 없습니다.

월락월해중 영생불멸이라 (月落海中 永生不滅)

달이 철해 가운데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철해란 글자 그대로 철로 만들어진 바다란 말입니다. 그 철의 바다에 달이 떨어졌다는 것인데 그 달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대천 세계를 비춘다는 말입니다.

무엇이 불교인가

이것은 바로 이 주장자를 설명한 것입니다. 주장자라고 하면 이치에 어긋났고 아니라고 한다면 사변에 어긋난 그것을 철의 바다에 떨어진 달을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알아야 불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불자들이 불교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무엇이 불교냐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누가 명쾌히 '불교는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로 어려운 대답입니다.

평생 부처님 가르침을 연구하고 또 집에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하는 것이 다 불교인데 막상 불교가 어떤 것이냐고 물으면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여기서 부처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고해의 중생들에게 위없이 큰 법, 우주의 모든 것을 삼키는 진리를 가르치려고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처음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한손으로는 하늘을 가르키고 또 한손으로는 땅을 가르치며 눈으로는 사방을 둘러 보셨습니다. 그리고 사방으로 일곱팔자국을 걸으시고 '천상천하유아독존(天上天下唯我獨尊)'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 위나 땅 아래에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는 오직 나 홀로 존귀할 뿐이라는 이 제일의 소리는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불교를 아는 첫 길 이 바로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것은

곧 불교의 대의이기도 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나를 알아야 불교를 알고 불교를 알면 나를 알게 된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또 무엇을 설하셨습니까. 아함경을 12년간 설하셨고 방등경을 8년간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21년간은 반야경을 설하셨고 나머지 8년간은 법화경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49년간을 설하신 것입니다. 우주의 모든 진리를 49년간 이런 저런 경으로 설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무슨 책을 써서 설하신 것은 아니고 그 법문의 내용을 묶은 것이 경이 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출가 이전부터 사유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그리고 그 법을 가르쳤습니다. 출가후에도 설한에서 사유를 게을리 하지 않았습다. 그 사유가 곧 참선입니다.

본래 고요한 마음

자, 이제 불교가 무엇이라고 물으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일평생 절에 다니면서 법문을 듣고 경을 배우고 했는데 불법이 무엇이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한다면 그런 참회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불교 성지순례 (Buddhist Holy Land Pilgrimage) advertisement. Includes a table of travel packages to Thailand, Taiwan, and other regions, with details on dates, prices, and services. Features a logo for 'A' (주) 아태관광 (A (Co.) Asia Pacific Travel) and contact information: 732-3200 (代).